

베트남 호치민 이야기

제 2화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바다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강은 알고 있어

<수민이가 소개하는 10월 보고서>



- 베트남의 진정한 댄싱퀸
- 찐빵 없이는 못 살아~
- 23세 이수연 (18년 기준)



- 최강 귀염둥이
- 카페 쓰어다는 내꼬야!
- 22세 이수민 (18년 기준)



- 감성 빼면 시체
- 여기 교수 추가요~
- 26세 오재영 (18년 기준)



- 워크하면 나야 나!
- 피자롤이 최고야
- 24세 양소희 (18년 기준)



- 오늘은 내가 요리사~
- 의자 좀 줄래?!
- 25세 이상표 (18년 기준)



목차

Contents



01 우리들의 10월 정규 활동

- Weekly report
- Consulting session
- Field trip (구찌터널, SOS village)
- Pagoda & Niem t̄in 봉사활동
- End poverty campaign



02 피드백

- 파고다 피드백
- Niem t̄in 피드백



03 라온아띠의 시간

- 활동 하나
- 활동 둘
- 활동 셋



' 10월의 라온아띠'

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천천히

힐링을 찾았다.

속도의 차이

할로윈

Field trip

YSD 와 라온아띠의 관계

교육 & 환경

주제?

온전히 나를 찾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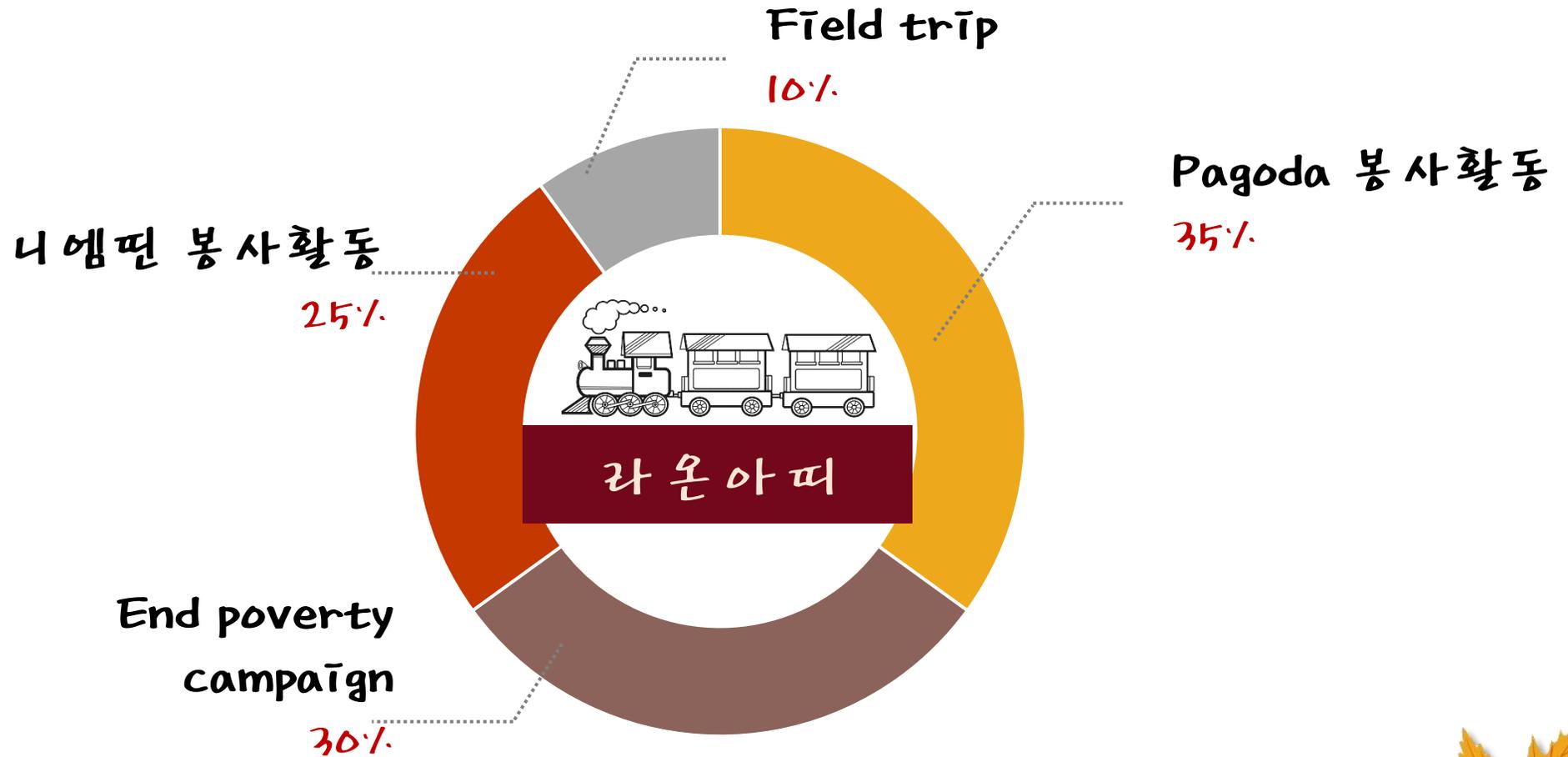
사람때문에 행복했던 시간

" . . . "



'10월의 라온아띠'

활동을 한 눈에 보기!



Weekly report

Weekly general report < 10/01 ~ 10/07 >

Ky Quang Pago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ough the subject has changed since October, the content of the Pagoda activity seems no different from September. (directional nature to activity) - I'd like to change the time of the activity. Because we need a meeting time for activities like end-poverty campaign. Also, We think it is inefficient to take three hours off lunch and work an hour. Therefore, it would be better to change the time from 8:30 to 11:30. (This does not change the total time we work.)
Cu Chi Tunn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rough Gucci Tunnel, I felt the overall environment and history of Vietnam. - I thought that poverty in Vietnam could be hygiene. For example, smoke and smoking in cars.
Coo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ank you so much for considering our taste in cooking.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sudden change of schedule is confusing. (I'd like you to let me know in advance.) - I feel like my activities are disappearing. (For example field trip) - YSD is considerate of us. Thank you♥

2nd Week Report of October

- At the KY Quang Pagoda
 - These days, there are no teachers of infants, so I feel the importance and need of teachers.
 - Service hours without teachers were more confusing. So we need to prepare for activities that we can do with our children.
 - I feel the need for activities with my children, but I am worried about what to do. We want to be educated and get a lot of information and get active. I want to plan and work with the help of YSD friends. ex) Interpreting, sharing information
- Other activities
 - It was good to have time to look around Ho Chi Minh in Vietnam for the past week. It was good to see the new environment. I think this activity will be helpful in planning projects after 3 months.
 - I wonder more places and environment in the future, so I want to go to a new place with YSD friends. I want to get more accurate and more information through it.

Weekly Report

Ky Quang Pagoda & Caritas
The Pagoda program has language difficulties. Therefore, I think it is efficient to teach with a Vietnamese volunteer or pagoda representative. I want to continue to program, but I do not know what to do.

The understanding of children is increasing. But I do not know how to understand education. I do not think that understanding in terms of October topic is getting higher. I want to understand how to educate children in Vietnam.

I want to go to kindergarten in Vietnam to educate children of Pagoda. I want to compare with kindergarten of pagoda.

SOS Village
I heard that poor children are living together. But the facility was better than I thought. Unlike Pagoda, there were baby-sitters and children's emotional ties.

When I saw the poor environment of Pagoda, I thought that the welfare system was difficult. But SOS Village thought it was good to see a systematic system. I thought it was good to have a nanny to the children. The time to see SOS Village village was too short and limited.

I would like to see an environment that is not better than looking at a good environment. The SOS village is very well equipped. Therefore, there was less to learn. I thought that the children live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Weekly report (10. 28)

About campaign.
We did not tell you about things we had to prepare in advance, but we were so thankful for working together on this.
And we're still thinking about what we can do in our current program or vietnam. In fact, we were worried about whether we can be able to find a project we wanted to do after three months, if we continue the same activities as we do now. But, through this campaign, it was great that able to hear the opinion of vietnamese people directly about vietnam and poverty. It was time for us to worry and understand more about vietnam.

-About pagoda volunteer.
We are looking for things we can do because we think we are acting too passively.
(We will try to get palsy children to distinguish the sounds, using bottle, inside rice or water)

-About November time schedule.
Is the november timetable confirmed? Or are you planning again?
And Tell us about your thoughts on the topic.

10월에 처음으로 시작한 weekly report는 한 주 일정에 대한 피드백과 우리의 고민거리 및 궁금증을 물어보는 report로, YSD와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Consulting session



10.09 : 활동에 대한 피드백 - "파고다와 Niem tın 같이 장기적인 활동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지만, '아이들' 이외에도 베트남의 다른 환경들을 접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번 달 주제가 '환경과 농업' 이라고 했는데, 이번 달 스케줄을 보면 'field trip' 이외에는 '아이들' 이 주제였던 9월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우리 끼리 가볼 수 없는 빈곤 지역이나 여기와는 다른 환경을 YSD사람들과 함께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 10.21 'SOS빌리지 방문 성립' '주제에 대해 다시 토론'

10.16 : 활동과 빈곤퇴치캠페인에 대한 논의 -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파고다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한 우리의 요청에 대한 YSD의 피드백, 그리고 우리의 빈곤퇴치캠페인 제안에 대해 YSD에서 캠페인의 목적, 방법을 요구하였고, 세부적인 계획과 그 효과에 대해 논의함"

- 파고다 활동 시간 조정, 10.26 빈곤퇴치 캠페인 진행

10.23 : 중학교 프로그램과 활동 주제에 대한 논의 - "중학교 혹은 고등학생의 교육환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의견과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아들여 YSD에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문화교류 활동을 제안. 또한 주제와 활동이 맞지 않는 거 같다는 우리의 지속적인 의견에 대해서 '주제'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활동 방향성, 즉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을 이야기 함. - 11월 중학교 프로그램 예정, 11월 활동에 대해 다시 토론.

구찌 터널



10월 주제(교육, 농업, 환경)를 맞이하여 field trip이라는 새로운 일정이 생겼고, 첫번째로 **구찌터널**을 방문하였다.

구찌 터널은 베트남 전쟁이 종결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전쟁의 흔적이 여전히 전해지는 곳이었다.

이 곳은 베트남군이 미군을 피하기 위하여 지하에 토굴을 만든 곳으로, 한 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을 뚫은 뒤 그 위를 나뭇잎을 덮은 판자로 막아 놓은 형태로 되어있었다.





구찌 터널



사람 한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구멍에 들어가는 재벌~ 나는 절대 못 들어 감^^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와 터널 내부의 모습. 내부는 앉아서 기어서 걸어가야 할 정도로 높이가 낮고 사람 한명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통로이다.



구멍인지 말 안해주면 절대 모름!
(평상 시엔 구멍이 막혀 있음)



Yummy Yummy



구찌 터널에서 먹었던 간식으로 약간 고구마? 감자 같은 맛이 난다.

SOS village



- SOS village는 총 13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 데이케어 센터로, 고아인 아이들을 부모가 함께 살면서 돌보는 보육 시설이다. 첫 시작은 호주였으며, 베트남에는 1968년 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총 20가구가 이곳에 모여 살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며 교육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빌리지 밖의 고아들을 위한 후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 파고다와는 다른 환경의 데이케어 센터를 방문하게 되어, 보육시설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우리가 집 안을 방문했을 때 그곳은 여느 집과 다를 바 없이 아이들의 사진으로 가득했고, 밝은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처음에 집 안에 계신 남자, 여자 분을 아빠, 엄마라고 소개해 주셔서 조금 놀랐고, 알고 보니 그들은 부모였다. 이곳 마을은 한국의 단독주택과 굉장히 모습이다. 또한 마을 안에 학교도 위치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장소이다. 이곳의 정확한 의미와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 나는 SOS village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 이곳에 방문한 뒤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한국에도 이 시설이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귀국 후 방문해 보고 싶다.



-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살아간다는 시스템 자체를 처음 알게 되었고, 우리가 가는 파고다 교아원과 다르게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 다시 한번 놀랐다. 교아를 위한 베트남의 시설과 환경은 열악하다고만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PAGODA 봉사활동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파고다에서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하였고, 그 외 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던 상황에서 파고다 유치부 선생님이 일을 그만두셨다. 본격적으로 우리는 그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고, 새로운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아기상어, hello song, 베트남 숫자송을 준비하여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



PAGODA 봉사활동



생수병에 쌀과 물, 소금을 양을 조절하여 각각 2병 씩 만들었다. 생수병 곁에는 그림을 그려 넣기도 했다. 흔들면 각기 다른 소리가 났고, 이 장난감을 통해 아이들은 오감 만족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이 중 가장 인기 있었던 장난감은 바로 적은 양의 쌀이 들어 있었던 생수병!!



아이들은 각기 다른 소리의 많은 흥미를 가졌고, 곁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다음 날 가보니 몇 개는 버려져 있고, 몇 개는 내용물이 비워져 있었다. 우리는 장난감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됨을 느꼈다.

Pagoda 피드백

소희

“나에게 KY Quang Pagoda” 는 지금에 와서는 ‘힐링’ 이자 ‘고민’ 을 안겨주는 장소이다. 이제는 파고다의 가는 길목의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파고다 안의 사람들과 조금씩 소통하는 재미가 생겨나고 있으며, 아이들을 보는 게 나의 기쁨이기도 하다. 가끔씩 유치부의 아이들이 한 번에 달려들면 놀아주는 게 버거울 때도 있고, 뇌성마비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도로 뱉어내거나 가끔씩 그곳의 위생적이 못한 환경들을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나는 파고다 만큼은 우리 5개월의 활동에 있어서 꼭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를 보면 이제는 달려와주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달려오지는 못해도 박수 치며 웃어주는 뇌성마비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에 지금도 고민이 크지만, 그 고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파고다가 우리의 장기 활동이기에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수민



파고다에서의 나의 모습은 9월과 달리 조금 여유롭다.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9월의 나와는 다르게 이제는 점점 익숙하게 나의 일을 찾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백퍼센트의 확신은 없지만 나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쩔 줄 몰라 어색하게 웃던 이수민이 아닌 아이들을 보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웃음을 짓고 있는 나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곳에 활동에 적응한 것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가끔 일어나지만 이제는 당황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씩 나아가고 있다. 이곳에 가면 봉사하는 느낌도 나지만 내 자신이 힐링을 받는 기분도 든다. 티 없이 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걱정스러웠던 일 고민 많던 일이 모두 기억 속에 사라지고 아이들만 생각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곳의 봉사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고 싶다.

파고다 안에서 나는 즐거웠다. 아이들과 놀아 줄 수 있어서 도와 줄 수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되었고, 전부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관계가 돈독히 쌓여지는 것도 느껴져서 더욱 나에게서 즐거움과 새로움이 배가 되었다. 이곳에서 나와 다름이 존재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습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고 나누는 것이 아닌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가 되고자 하였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더욱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뭔가 일상 같으면서도 일상 같지 않다. 앞으로의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 내고 싶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는 있지만 많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막연함이 있다. 우리가 직접 새로운 기구들을 만들고, 이를 뇌성마비 아이들에게 활용하고 있지만 나의 활동이 장기적으로 뇌성마비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지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는다.

정기적으로 가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고민들과 활동들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의 1~2주 정도 활동하는 단기봉사자들과는 활동의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실천이 앞으로 남은 라온아띠를 더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훈육에 대한 나의 입장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나에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다. 우선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면 내가 다 행복하다. 하지만 항상 아이들이 예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간혹 예의 없고 잘못된 행동을 보일 때는 화를 참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친구의 밥그릇에 떨어진 음식을 집어넣는다거나, 가만히 있는 아이를 이유 없이 때리고 지나간다거나, 사람에게 장난감을 던져 맞추는 행동들을 할 때는 가만히 보고만 있기가 힘들다. 무엇보다 예의를 중요시하는 나는 아이가 어른에게나, 밥상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무조건 아이를 혼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파고다 내 선생님들의 훈육방식은 벌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이에게 소리치고 다그치는 나의 모습에 선생님들은 꽤나 놀라신 것 같았다. 또한 아이들도 한번 혼이 나면 슬금슬금 나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니 미안하기도 하고, 어디서 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하곤 했다. 아이가 잘못을 해도 눈감고 넘어가면 감정소모도 하지 않고 편하게 활동하겠지만, 그럼 그 아이는 버릇없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또다시 혼을 내는 사람이 된다. 이 부분은 팀원들과도 공유하여 해결법을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도 고민 중이다.

#새삼 다시 느낀 우리의 수동성

지금까지 우리의 유치부 활동은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집중 시키고, 쉬는 시간에 함께 놀아주고, 청소와 아이들 식사를 도와주는 등의 활동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레 유치부 선생님이 일을 그만두셨고, 온전히 우리만의 힘으로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가장 크게 다가왔던 고민은 우리가 너무 준비 없이 파고다 활동을 했었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계실 땐 아이들의 교육도 이루어졌고, 케어와 산책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우리는 간단한 교육조차 하기 힘들었고, 말이 안 통하는 우리의 말을 아이들은 듣지 않았다. 또한 파고다에서 한 달 넘게 시간을 보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 활동 한 가지도 깊게 생각해 놓은 것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놀이부터 시작해 간단한 교육까지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단순히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는 정서적인 활동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아님 선생님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채워야 하는가는 개인적인 고민으로 남겨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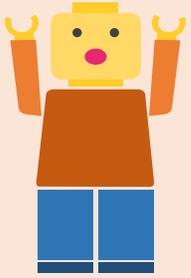
Niem tīn 봉사활동



이번 달은 Niem tīn 에서 선생님들의 치료방법을 자세히 보았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굳은 다리를 마사지해주고,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찡그리고 계속 칭얼거렸지만 아이들에게 피아노 소리를 들려주고, 장난감으로 흥미를 이끌며 치료를 계속 하셨다.

우리는 이 곳에서 주로 치료와 교육이 끝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일을 하였다. 우리는 노래를 불러주기, 공 놀이, 블록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밝게 웃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파고다 아이들 생각에 씁싸이기도 하였다.





Niem tīn 봉사활동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미소를 주는 라온아띠~



공을 좋아하는 재연~
언제나 재연 옆에는 공이!!!



상표랑 소희~~
이러다 정 들겠어 정말~~

"나에게 Niem Tīn" 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았던
고마움이 많은 장소이다.
10월부로 Niem Tīn 활동은 마무리를 지었다. 이 기관의
경우, 뇌성마비 아이들과 함께해주는 전문가들로부터
우리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 가족들과 소통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필요한 곳으
로 가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대한 피드백이 받아
들여져 11월부터는 다른 기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하지
만 "Niem Tīn" 역시 한 달을 더 겪어보니 9월에는 가
족이 있는 뇌성마비 아이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사랑받
으며 자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10월에는 그 아이들을
가진 가족들이 가지고 가야할 무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진 특성 자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
다. 가끔 아이들보다도 우리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 많았
던 순간에도 우리를 먼저 생각해주고 반겨주는 Niem
Tīn의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미숙하게 대해도 우
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웃어 주시던 가족 분들이 모두
생각날 거 같다. 크리스마스 축제 때 다시 볼 수 있기를!!

Niem tīn 에서 나의 모습은 관찰자의 모습과 비
슷하다. Niem tīn은 치료센터로 치료하시는 선
생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놓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이것을 완벽하게 파고
다 뇌성마비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
나 Niem tīn 에서 배운 것은 아이들은 재활이 있
으면 있을수록 아이들에게 좋고 지속적이면 더더
욱 좋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감각활동이
정말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Niem tīn 에
서 본 감각활동을 우리 방식대로 바꾸어 파고다에
적용하였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이 따라 줄까?
고민도 많았지만 감각활동 놀이로 즐거워하고 감
각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뿌듯함
을 느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느꼈다.

Niem tīn은 치료 도구, 환경, 치료자 등 뇌성마비 아이들이 치료를 받기에 꽤 좋은 시설이다. (물론 전문병원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2달 정도 활동을 하며 느낀 감정은 잘 모르겠다 이다. 사실 Niem tīn은 처음 갔을 때부터 나의 역할을 잘 찾지 못하였다. 방문하는 아이들에 비해 전문 치료사는 많았고, 거기에 부모님과 봉사자까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치료가 다 끝나고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놀아주는 것뿐이었다. 그마저도 아이가 시설에 방문하지 않으면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그런 모습을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아이 부모님을 보는 것도 굉장히 뜻 깊은 일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시간보다는 파고다 처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기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이 에세이를 쓰고 있는 지금은 Niem tīn 활동이 끝난 상태이다. 바로 어제 마지막 활동을 끝내고 왔기 때문이다. 2달이라는 시간동안 그곳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이젠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지만,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그곳에서 아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잘 자랄 것을 믿고 확신한다. (수녀님께서 크리스마스 축제 때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고 하였으니 그때 또 만나요 ♥♥♥)

지난 한 달 반 동안 정말 감사한 기관이었다. 이 기관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들은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었고 그 분들을 통해서 아이는 물론 불편한 아이들을 어떻게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들은 나에게 많은 영감과 메시지를 주었다. 그렇기에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

상표

Niem tīn 피드백

아쉽게도 10월이 마지막이었다. 이제야 적응을 했다고 생각한 시점에 끝나고 말았다. 개인적으로 시설과 활동하시는 분들 모두 마음에 들었던 기관인 만큼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다. 뇌성마비 어린이를 위한 전문적인 트리트먼트를 진행하고 있어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았던 기관이었다.



End poverty campaign

1 설문조사

베트남의 빈곤에 대한 현지 대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이 궁금하였고, 우리는 호치민 인문사회대학교에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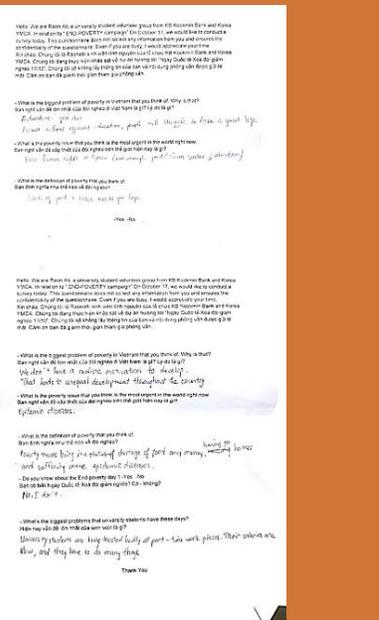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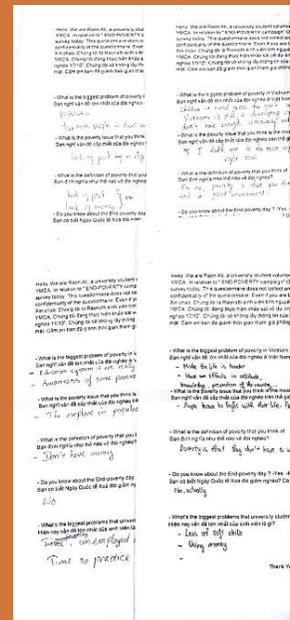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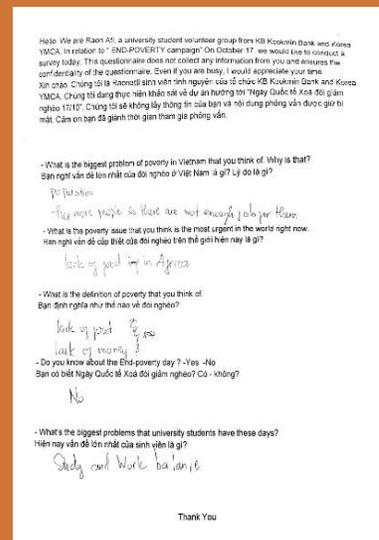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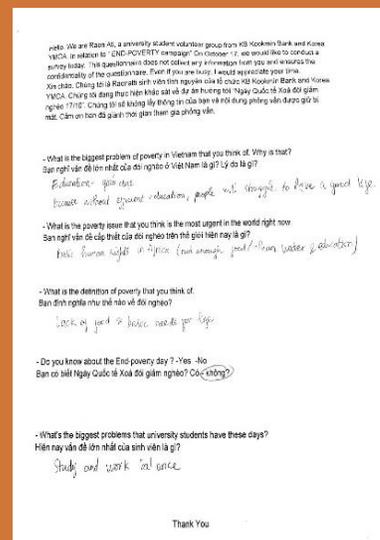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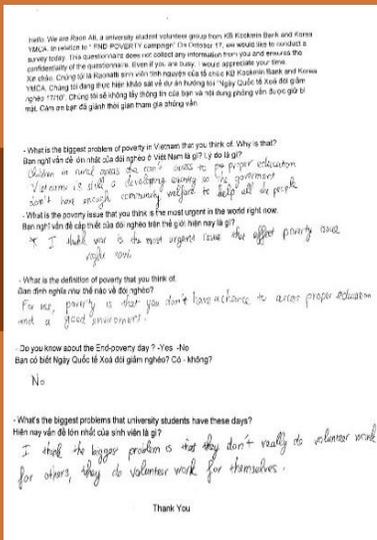
End poverty campa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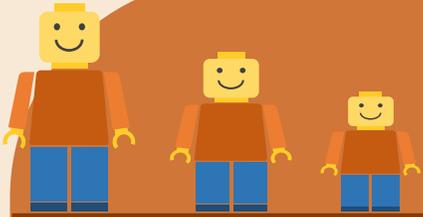
1 설문조사

YSD 친구들의 번역 도움을 받아 설문지 결과를 분석하였다!

<문항>

1. 당신이 생각하는 베트남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2.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빈곤 문제는 무엇입니까?
3. 당신이 생각하는 빈곤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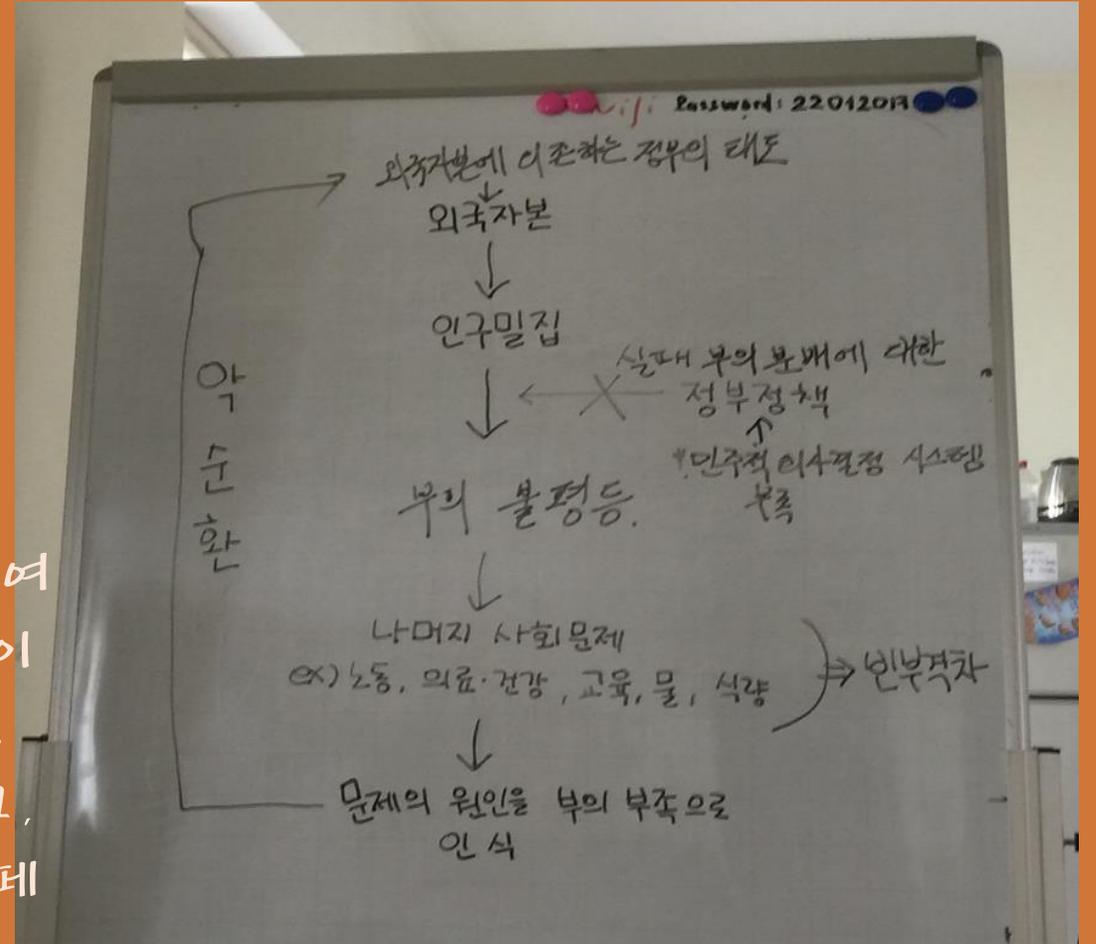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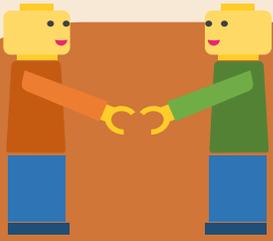
End poverty campaign

2 Brain storming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베트남의 여러 사회문제는 악순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소재로 한 영상을 제작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그에 대한 생각과 피드백을 들어보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가 발견한 베트남 빈곤의 악순환!



End poverty campaign

3 베트남의 빈부격차 직접 관찰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의 빈곤으로 꼽았던 '빈부격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도 하였다.)



VS



End poverty campaign

4 영상 제작 및 피드백 과정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사진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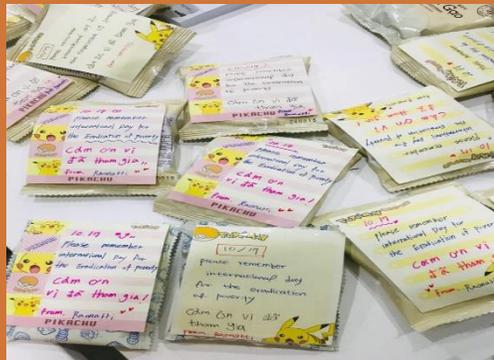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YSD 친구들과의 회의를 거쳤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캠페인을 위한 베트남 빈곤의 영상이 완성되었다!!



End poverty campaign

5 캠페인 시작!!

첫 번째 장소였던 **영스컬처 하우스**,
많은 국제학교 학생들을 만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호기심 가득 아이들의 참여율 Good!)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
해 우리가 준비한 간식~~

홍보용 판넬도 직접 만들었다 ㅎㅎ

End poverty campaign

5 캠페인 시작!!

두 번째 장소는 북스트리트 거리,
세 번째 장소는 호치민 인문사회대학교

이 곳에서 우리는 많은 대학생 및 시민
들을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꺼려하
는 모습도 보였지만, 캠페인에 진지하게
참여해 주었고, 영상에 대한 피드백도
자세히 주었다. (감사 ㅠㅠ)



End poverty 피드백

소희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만큼 뿌듯함이 큰 활동이다!

처음에는 솔직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고, 이 캠페인에 대한 의의보다는 그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YSD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며 도움을 청해야 할지 어려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 끝에 더 좋은 캠페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처음에 주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생각했지만, YSD에서 장소를 제시해주고 함께해 준 덕분에 다양한 연령층, 직업의 사람들에게 '빈곤'에 대한 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주로 베트남의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모든 나라가 빈부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알리고 싶었는데, 이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으며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한 베트남의 빈곤에 대한 원인과 현상이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 접해보고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 같다.

수민

나는 솔직히 세계빈곤의 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다. 10월 13일인지도 잘 몰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관심이 가는 활동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지 활동을 계획하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웠고 참여도 남들에 비해 더뎠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피드백하는 부분에서 조금씩 재미를 느꼈고 캠페인 당일에는 정말 즐거웠다. 또한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캠페인이어서 그런지 더욱 뿌듯함도 있었다. '가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다 달랐다. 그리고 나는 베트남은 가난하다고 생각했지만 2달 정도 생활하다 보니 베트남은 결코 가난한 나라가 아님을 느꼈고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무궁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번을 통해 앞으로도 이러한 캠페인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nd poverty 피드백

재열

베트남에서의 우리의 기획대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이었다. 빈곤이라는 같은 단어를 두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달랐다. 그래서 많은 토의와 소통을 통해 캠페인의 준비와 실행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빈곤에서 벗어나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말이다. 빈곤이라는 것은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 없고 어떠한 누구의 의견을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빈곤을 떠나서 모든 의견에 대해서 말이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혼란스럽고 했고 순조로웠기도 했고 운이 따라주기도 했고 다양한 것들이 작용해서 이 또한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

상표



빈곤퇴치캠페인을 마치고 가장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전달력 부족이다. 캠페인을 구상하면서 우리 팀은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순환구조를 만들고, 이를 베트남 청년들에게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한계가 다소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베트남의 빈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흔히 외국자본이 한 국가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많이 한다. 그러나 내가 본 베트남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외국자본은 그 나라를 결코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베트남의 청년들에게 전달한 것은 분명한 의의라고 생각한다.

End poverty 피드백

수연

설문조사부터 캠페인 진행까지 베트남 사람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좋았다. 솔직히 외국인이 다가와 어떠한 부탁을 하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 주었고, 여러 질문에 깊게 고민하고 답해주는 모습에 너무도 감사함을 느꼈다. 베트남의 빈곤을 현지인에게 물어본다는 것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과연 정부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외국인인 내가 보았을 때 베트남은 자본주의화가 되긴 하였지만 사회문제를 놓고 보면 공산주의 이야기를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정책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면 과연 우리가 캠페인으로 이를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설문조사 결과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정부정책 문제를 꼽아낸 내용이 많았다. 우리는 이에 대해 많은 회의를 거쳐 베트남 빈곤의 악순환을 주제로 잡아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 캠페인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외국인인 우리가 바라본 베트남의 빈곤에 대해 현지인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고, 이로써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이를 한국의 사회문제와도 비교해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현지인이 자국의 사회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캠페인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1 라온아씨의 추억 하나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여 할로윈 코스프레를 하고 초치민 시청으로 나가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활동을 제외한 오랜만의 외출이라 다들 신나 버림~~

2 라온아띠의 추억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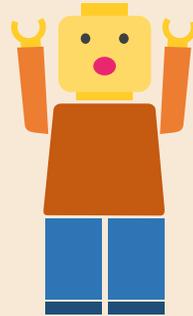
다같이 KFC 나들이~
수연이가 좋아하는 징거버거 강추!!



3일 동안 1일 1식한 상표, 수연, 소희 살이
빠졌는지는 각자 판단하는 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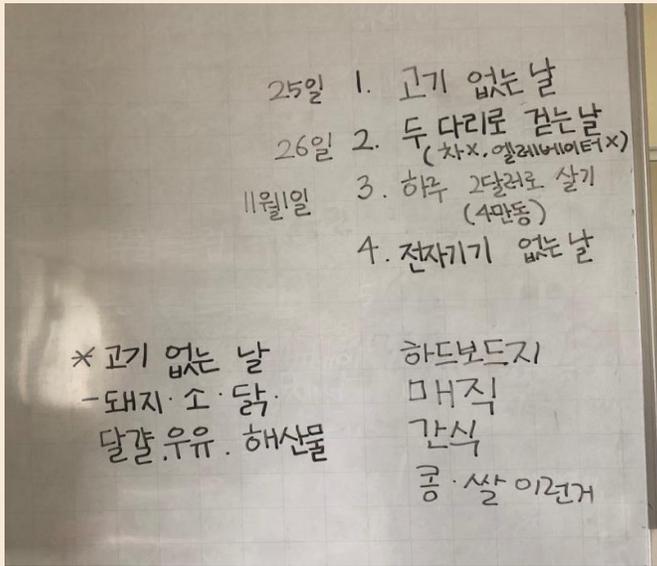
베트남 '여성의 날' 을 맞이하여 상표가 준비한 아이스크림~
(여성의 날의 여성은 결혼한 여자인 건 상표한테 비밀 ... ㅎㅎ)



하우스 메이트 딘과 함께하는 삼겹살 파티~
우리만큼 매운 걸 좋아하고 잘 먹는다!!

3 라온아띠의 추억 셋

<우리만의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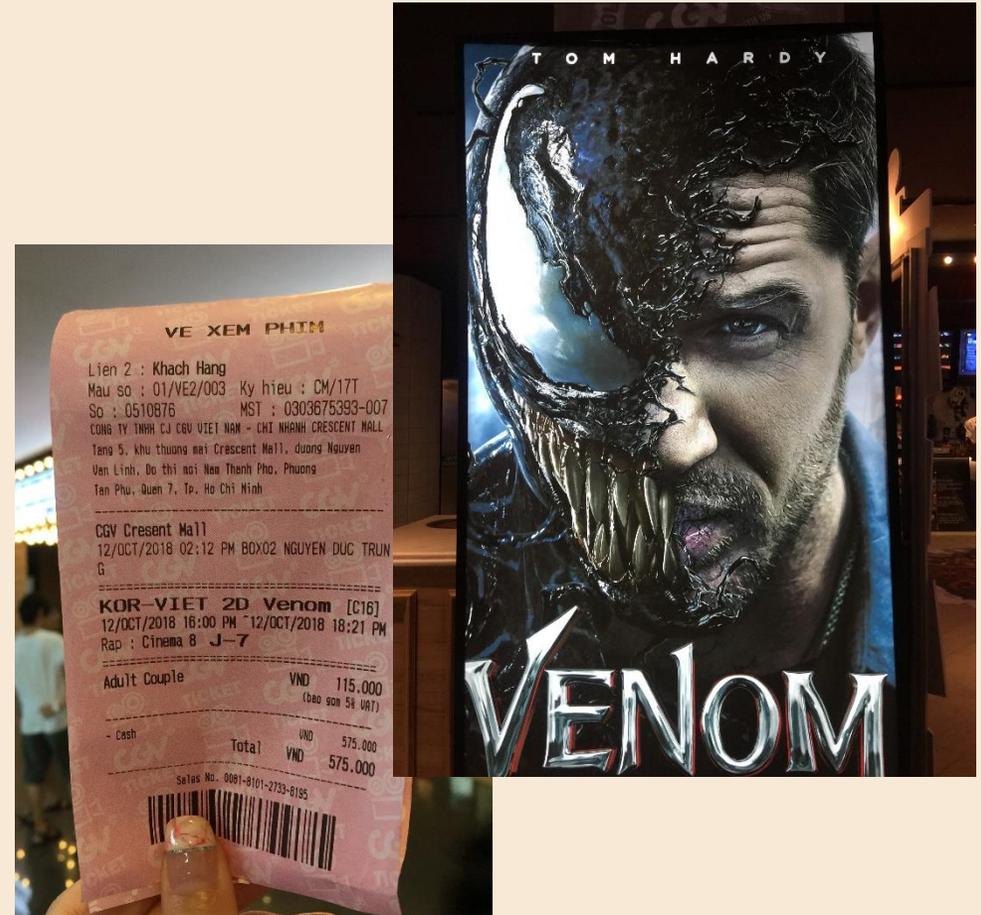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상표
 와 빵을 너무 좋아하는 수민
 에게는 힘들었던 하루~
 우리만의 캠페인이라 그런지
 더욱 재미있었고 즐거웠다.
 남은 3개의 캠페인이 더욱더
 기대된다.



이 날은 유독 과일을 많이 먹었다~

<우리들의 여가 시간>



푸미흥 크레센트 몰에서 본 우리의 10월 영화 '베놈'
 영화를 본 후 우리가 베놈처럼 먹었던 건 안비밀~~~
 다같이 영화보는 시간이 우리만의 힐링

4 라온아띠의 추억 넷

<호치민시 한국 국제 학교 방문>



호치민시 한국 국제학교를 방문하였다. 운 좋게 교내도 구경할 수 있게 되어 학교 안을 둘러보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위치하고 있었고, 교실의 풍경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대학교 임시날짜가 게시판에 붙여 있었던 것이다. 어딜 가나 고3 학생의 모습은 다 비슷한 것 같다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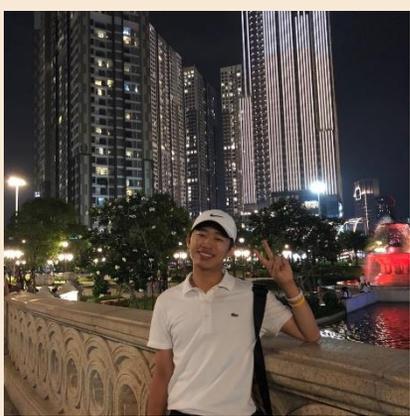
<YSD 친구들의 요리>



우리를 위해 요리해준 YSD 친구들. 고수를 잘 먹지 못하는 우리를 배려해 고수도 넣지 않고 요리를 해주었다. 쌀국수 이외에 짜조와 감자튀김도 만들어 줬다~. 정말 맛있었다. 꿀맛!!



5 라온아띠의 추억 다섯



베트남의 빈부격차를 느끼기 위해 답사차원으로 간 빈훙 단지.



재연과 수연의 진정한 커플룩

이 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백화점부터 야외 수영장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또 하나의 도시라고 느껴질 만큼 좋았고, 때문에 빈부격차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우리 오늘부터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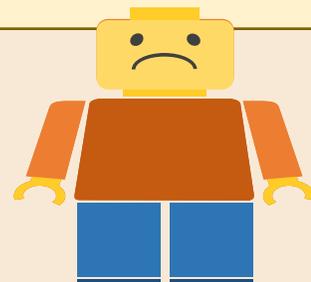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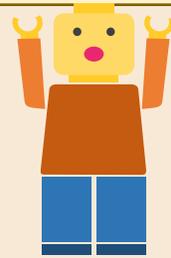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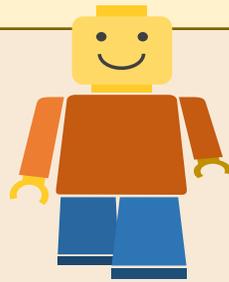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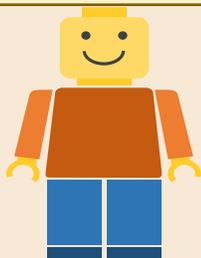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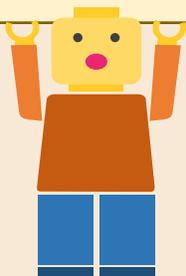
10월의 고민거리

1. 우리들의 활동 주제

: 10월 달 우리의 주제는 환경, 농업이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은 9월과 변함이 없었고, 이 활동은 주제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이러한 피드백에 YSD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으로 주제가 바뀌었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주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 모든 활동의 대상이 오로지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된 고민이었다.

2. 팀원들의 속도

: 어떤 팀원은 빠르고, 어떤 팀원은 느리다. 이러한 팀원들의 속도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 같다.



9월 고민거리 되돌아보기

1. 파고다에서의 우리의 역할, 의미에 대한 고민 → '잘' 활동하는 방법

: 이제는 파고다에서 우리의 역할이나 의미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그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이다.

2. 활동을 계획하는 회의시간이 부족 → 파고다 시간을 조정

: 9시~11시, 2~3시의 봉사시간을 8시 30분~11시30분으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중간에 3시간이라는 다소 긴 쉬는 시간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간을 우리들의 회의시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3. YSD 사람들과 분리되는 느낌과 기관에 대한 이해도 부족 → 아직도 고민중인 문제이다.

4. 작업공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 → 자연스럽게 해결

: YSD사람들이 9월과 달리 10월의 사무실 이용의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 생활에 불편함이 감소하였다.



<10월의 소회 에세이>

10월은 정말 '시간 순삭'의 달이었다. 정말 모두 한 번씩 '벌써 10월 말이야?'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 같다. 그만큼 정신없이 지나갔던 10월의 시간 동안 나 그리고 우리로서도 조금씩 발전하고 적응하고 또 넘어지는 모습들이 함께 10월을 정리하면서 그려졌던 거 같다. 그 시간들을 평소에도 함께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더 길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 아쉬움 보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10월의 활동에 있어서, 이번 달을 정말 다양한 것을 배우고 경험했기에, 그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생각하면 머리 아프지만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팀원이, 그리고 YSD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새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사실 나는 2개월쯤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모든 건 '적응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파고다 활동도 어느 정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익숙해졌지만 이제는 또 다른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으며, 팀 활동에 있어서도 나눔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팀 생활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들이 계속 새롭게 주어진다



물론 우리가 이곳 '호치민'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익숙해져 가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 몸소 느껴지기는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파고다 가는 정류장을 잘못 내리려 했을 때, 우리를 자주 태우던 버스 안내원 분이 여기서 내리면 안 된다고 말린다던가, 이제는 음식 주문이나 버스표, 파고다 사람들과 인사나 농담을 간단한 베트남어로 하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에 말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도 나는 베트남에, 라온아띠에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한국과 비슷한 환경이 많은 호치민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전자기기도 있는 우리 생활에서 나는 어떻게 더 '베트남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나만이 아닌 우리 팀원과 YSD사람들과 어떻게 더 소통하고 함께 활동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이다.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10월을 활동하면서 느낀 건 목표가 거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 지키게 되니깐..^^) 그저 매일 보는 파고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Emay (동생~)' 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이름을 말하면서 외우기 위해 노력하고 더 베트남 사람들,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10월의 수민 에세이>



'남과 비교하며 안절부절못하며 사는 삶, 1등 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 번
어지지 않는 일에 지레 겁부터 먹는 일' 한국에서는 나의 일상이자 전부였다.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고, 뒤쳐지는 건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나였다.
이러한 나의 삶은 스트레스의 연속이고 절망과 좌절 뿐 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의
나의 삶은 다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나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으며, 더불어 남과 비교하는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여유로워졌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나 자신에게 하나씩 물어보는 시간이 생겼다.
그렇다고 나 자신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걸음 씩 나아가고 있다
고 느낀다.

베트남으로 온 지 거의 2달 짜 나는 이곳에 어느 정도 적응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 집 경비아저
씨, 집 앞 카페 아저씨, 슈퍼 아주머니, 아이스크림가게 동생 이렇게 친해진 사람도 있다. 이들과는 만나
면 '신 짜오~' 하고 반갑게 인사한다.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오며 가며 인사하고 지내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인사하려고 기다리기도 한다. 그리고 괜히 없으면 보고 싶기도 하다. ㅎㅎㅎㅎ 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베트남어 공부 좀 열심히 해야 겠다고 느끼지만 항상 느끼기만 하는 것 같다... 11월에
는 10월보다 더 열심히 공부 할 거다!! (이건 제발 지켰으면 좋겠다... ㅎㅎㅎ)



나는 저녁 7시~8시 쯤(한국시간은 9~10시 쯤)에 항상 한국에 있는 엄마와 연락을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는 나를 더 보고 싶어 하고 나를 그리워하신다. 처음에는 '나도 보고 싶어~' 이렇게 넘겼지만 엄마의 감정이 더욱 깊어질수록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엄마가 보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엄마는 수민이만 있으면 돼~' 라고 항상 말씀하신다. 이처럼 우리는 남들보다 서로에게 많이 의지하는 편이다. 다들 그럴겠지만 엄마랑 나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지금 엄마 곁에는 내가 많이 필요함을 느끼지만 나는 한국에 갈 수 없으니 이런 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더더욱 연락을 잘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씩씩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겠다고 느낀다.

또한 추가로 나의 고민거리는 교정기이다. 여기서 밥을 먹다가 교정기가 떨어졌다. 치과에 갔지만 교정기는 치료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밥 먹을 때도, 양치할 때도 흔들리는 교정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치료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아무런 방법도 없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떨어져 움직이는 교정기를 낀 채 생활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막막할 뿐이다.



<10월의 수면 에세이>

#우리의 주제 무엇?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들었을 당시 앞으로 베트남에서의 활동은 9월- 아이들, 10월- 환경과 농업, 11월- 의료, 12월, 1월은 우리가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활동을 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9월 달에는 파고다와 Niem tìn에서 활동하며 아이들의 특성 파악과 교육활동을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10월 달에 들어 우리의 활동에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주제가 바뀌었으니 그 주제에 맞는 활동을 하며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파고다와 Niem tìn 활동은 여전했고, 오히려 그 빈도수가 늘어났다.

이 부분을 YSD측에 물어보니 한 달만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관계형성에 너무 짧은 시간이니 장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 왔고, 환경은 굉장히 넓은 영역이니 파고다의 교육환경도 이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이들과 관계형성을 위해 장기 봉사를 하는 것은 찬성이다. 하지만 10월의 주제를 느끼기엔 그 빈도수가 너무 잦았고, 파고다 안에서 환경을 찾으라는 말을 나에게 너무도 뜬금없는 말처럼 들렸다. 따라서 파고다와 Niem tìn 이외의 스케줄이었던 field trip을 통해 베트남의 환경과 농업을 관찰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컨택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이 다수 취소되었고, 결국 9월과 다를 바 없는 활동으로 10월을 보냈다. (빈곤퇴치 캠페인 준비를 위해 우리 스스로 베트남의 환경을 찾아 나서는 시간을 가졌고,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의 주제와 맞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힐링방법, 과연 바람직한 걸까?

시간이 지나니 호치민에서의 생활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고, 활동에 있어서도 나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하지만 10월 동안 나의 생활에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 바로 푸미흥을 알게 된 것이다. 푸미흥은 베트남인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으로, 특히 한국인들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그 곳에 가면 여기가 베트남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어 간판과 제품들이 많고, 거리를 지나다니면 한국어가 심심찮게 들린다. 처음 그 곳에 갔을 때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일도 없고, 내 입맛에 딱 맞는 음식도 먹을 수 있으며, 다양한 한국 책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은 3개월 중 혹시라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에게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면 푸미흥이 이 향수병을 막아줄 것이란 생각에 행복했다. 그러다 문득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너무 한국의 모습을 한 이곳에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았고, 현지생활에 적응하려는 생각보다는 얼른 푸미흥에 가서 시간을 보내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이다. 또한 나는 지금 베트남에 있는데 왜 한국과 비슷한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힘들고 지칠 때 기분전환을 할 겸 가끔 그 곳에 방문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자제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한국의 모습을 한 장소에서 힐링을 하는 나 보다는 현지에서 적응해 나가는 나의 모습을 더욱 보고 싶다!!!





<10월의 상 표 에 세 이>

2개월이 지났다. 매번 개인에세이에 나오는 멘트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났다.' 사실 2개월의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들만의 프로젝트' 이다. YSD에서는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우리가 직접 베트남의 사회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고 주문했다. 3개월 중 2/3가 지난 시점의 '나' 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라온아띠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 부족하다.

남은 1개월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찾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를 찾고 이를 위해 고민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판단이 설 것이고 '우리들만의 프로젝트' 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0월의 재결 에세이>



'환경'이라는 주제로 베트남에서의 두번째 달이 시작되었다. 처음에 10월 스케줄표를 받아 보았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활동이 많았다. 국립공원, 국제학교, 물, 식물, 쓰레기 등 관심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주제와 연관 지어 볼 수 있게 되어서 말이다. 하지만, 일정이 하나 둘씩 취소가 되고 활동 방향이 변경이 되는 것이 잦았다. 그리고는 지난 달과 비슷한 스케줄의 활동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 우리 팀의 고민이 이어졌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혼란이 가득했다.

나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 의미와 동기를 계속 불어 넣었다. 비록 혼란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분명히 '배움과 새로움이 가득하다'라는 생각과 '천천히 오래오래'를 마음 속으로 외쳐가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 활동에 있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활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과 고민이 있는 팀 원에 비해 큰 고민없이 주어지는 대로 활동하고 있는 내 자신이 또, 다른 속도와 다른 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교가 되면서 다른 고민들이 생겼다. '나'라는 사람 그리고 팀원 속의 '나' 사이에서 혼란이 생긴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팀원인 나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말이다. 이것은 나에게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팀원에게도 그만큼 어려운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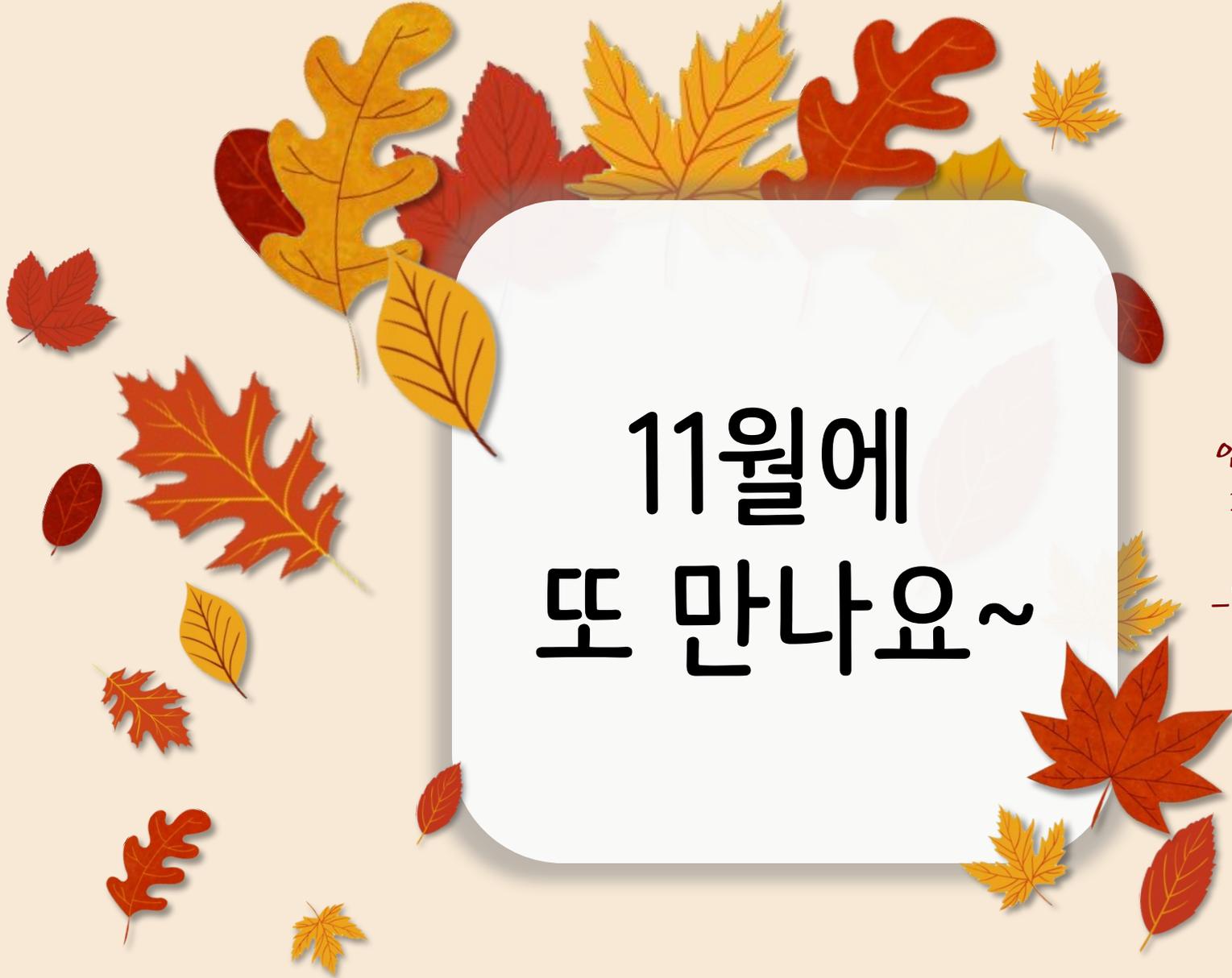
<10월의 재결 에세이>



한 달 동안 베트남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며, 그리고 이전과 함께한 장소와 사람들과 함께하며 계속해서 다양함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 다양함이 새로움을 주는 반면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다양함과 다름 속에서 함께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즐거운 일이자 쉽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많은 영감과 고민을 나에게 불러와준다? 그래서 좋지 아니한가?..라고 생각한다.

다양함과 함께해서 새로움으로 가득한 한 달이었다. 비슷한 활동과 계속되는 고민 속에서 몸이 아프고 머리속이 복잡했지만 역시나 새로운 것과 배운 것 그리고 느낀 것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좋은 시간도 나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도 나의 시간이다. 그 시간들을 모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곳에서 나의 미션이지 않을까 싶다.





11월에
또 만나요~

인생이라는 책에는 결코
뒤에 정답이 나와있지 않아

- 스누피 중 한 구절 -